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하철에서 ....



전날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밤을 새고 새벽에 잠이 든지라 아침부터 나는 졸리고 짜증이 났습니다. 지하철에 올랐을 때 그 날따라 사람들은 왜 그리도 많은지 손잡이를 잡고 서지 않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혼잡함에 익숙하게 되자 어느 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이도 나는 자리에 앉을 수 있었고 의자에 앉자마자

졸음 때문에 고개는 자꾸 바닥을 향했습니다.

얼마후면 내려야 한다는 걱정으로 졸음을 참을 까도 했지만 어느새 꾸벅꾸벅 조는 채로 몇 정거장 정도가 지났을까?

어찌나 큰 목소리였던지 내 잠을 단숨에 빼앗아간 아저씨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제 말을 들어주시시오!"

세수를 며칠동안 못했는지 단정치 못한 외양의 어느 아저씨가 통로 중앙에서 외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나같이 잠에서 깨어나 짜증난 얼굴, 호기심에 가득찬 얼굴 등 각색의 시선이 모아졌습니다. 아저씨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겐 네살짜리 딸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를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거기까지 말하자 승객들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로군, 얼마나 돈이 아쉬웠으면 딸까지 팔며 저럴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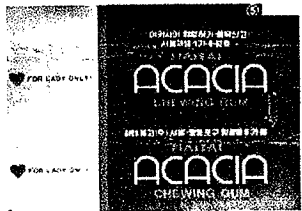
하는 표정 이었다.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있었고...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겠다 생각한 나는 고개를 숙여 다시 잠을 청했고 대부분의 승객들도 무관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전에 어느 책에선가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해주면 어려운 일도 이루어진다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다니는 중입니다. 지하철에 타 계신 여러분들도 부디 제 딸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딸의 이름은 송희입니다."

그러더니 그는 정중하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한뒤 다음칸으로 건너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하나 둘 조용히 눈을 감는 승객들을..



◀추억생각하기▶ 여성만을 위한 껌 '아카시아'  
"아까씨 그윽한 그 향기는 뭔가요 아~~~~아카시아 껌". 여성만을 위한 껌이라는 말에 더한 호기심으로 씹던 껌이었습니다. 알고보니 여성들은 여성다움으로, 남성들은 호기심으로 씹게 하여 크게 히트한 광고전략이였죠. 공부시간에 씹다 들켜 껌을 길게 늘어 머리카락에 붙여 놓으시던 선생님의 별, 그것조차 그리운 사춘기 시절의 껌입니다.

|   |  |  |
|---|--|--|
| 교회목표<br>하나님만이<br>삶과 교회의<br>주인   | '2003년 교회생활: "건강한가정.건강한교회"<br><b>갈보리 교회</b><br>Calvary Presbyterian Church | 교회생활지침<br>누가 10:37<br>*자원함 -섬김과 봉사<br>*의명성 -명예 |
| 제 5권 21 호   |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 2003년 5월 25일                                   |
|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  |  |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캐를 워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구원받은 자임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한때는 죄인이었음을 속삭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했노라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수하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하노라고

강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주시기를 기도하노라고

성공했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내가 진 빚을 다 갚을 수가 없노라고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혼란스러움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구하노라고

은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많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인정하심만을 믿노라고

삶의 고통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몫의 고통을 지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노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권위가 내게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 뿐이라고....

엄마가 딸에게  
현금은  
새 돈으로 해라  
그 마음의 자세가  
예쁘지 않느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잠든 새벽에 전화 받을 땐  
한 옥타브 올려 말해라  
예상치 못한 씩씩한 목소리는  
너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본다

#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                                    |  |          |
|------------------------------------|--|----------|
| 영 광 송<br>Gloria                    | "Calvary"  | 다 같 이    |
| 참회의 기도<br>Confession Pray          |  |          |
| 용서의 선언<br>Proclaim                 |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br>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니라       | 인 도 자    |
| *찬 송<br>Hymn                       | 47장  | 다 같 이    |
| *성 시 교 독<br>Response Reading       | 1 (시편 1)   |          |
| *신 앙 고 백<br>Apostle's Creed        | 사 도 신 경  |          |
| 교 회 소 식<br>Welcome & Announcements |  |          |
| 어린이 시간<br>Sunday School            |  | 주일학교     |
| 찬 송<br>Hymn                        | 98장  | 다 같 이    |
| 기 도<br>Prayer                      |  | 김종건 장로   |
| 성 경 봉 독<br>Scripture Reading       | 요한복음 6:35  | 인 도 자    |
| 성가대 찬양<br>Choir                    |  | 나무심자가성가대 |
| 설 교<br>Sermon                      | '예수님을 누구인가(1)<br>'생명의 떡'                         | 김성국 목사   |
| 찬 송<br>Hymn                        | 490장   | 다 같 이    |
| 헌 금 기 도<br>Offering Pray           |  | 인 도 자    |
| 응 답 송<br>Response Song             | '이 믿을 더욱 굳세라'<br>(1절:사카시다 키쿠오, 최기향 집사 가정 2절:다같이) | 다 같 이    |
| 축 도<br>Benediction                 |  | 김성국 목사   |

(예배를 마치고서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5.6월의 예배위원◆

| 일자 | 주일기도 | 헌금위원 | 가족찬송          | Tea Time |
|----|------|------|---------------|----------|
| 25 | 김종건  | 박재양  | 사카시다 키쿠오, 최기향 | 권용일, 김경구 |
| 1  | 노은숙  | 박정자  | 선 교 부         | 김경일, 김교섭 |
| 8  | 박일영  | 박태원  | 세월의 흐름        | 김반석, 김성국 |
| 15 | 이광희  | 박하림  | 이일원, 김혜경      | 김종건, 김중우 |
| 22 | 이규임  | 박혜련  | 유병민, 한상숙      | 김진근, 김현수 |
| 29 | 이재영  | 변민강  | 최원영, 이종란      | 민광호, 박병민 |

'2003년 교회표어  
"건강한 가정, 건강한교회"(마 18:4)  
부모의 기도받는 자녀  
남의 형편 헤아리는 신앙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7시

1. 교우소식  
\*한국으로 귀국. 사카시다 키쿠오 집사, 최기향 집사. 오늘 저녁 8시 출국  
그동안 아름다웠던 기억만 뿌려 놓으셨습니다. 주님의 승리로운 인도하심  
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사. 유성희 집사 ☎ 369-5503 ☎ 19 Grafton George Rd. Grafton  
\*등록하셔서 갈보리가족이 되심을 함께 기뻐합니다  
김경천, 이수자 성도, 은혜, 은선 ☎ 369-5222 ☎ 11c Tower Hill Apt. 1 Emily Pl. Auk
2. 오늘은 '사랑의 실천 이삭줍기' 주일입니다  
\*한달동안 모은 Silver coin을 드려 어린이 가장, 동남아 어린이에게 작은 위  
로의 사랑을 포함합니다
3. 9기 등록교우 기초성경공부(마지막회): \*일시: 27일(화) 저녁 7:30. 교회  
\*9기 기초성경공부를 마치며 "종파티"를 합니다. 빛나는 종강자리에 먼저  
이수한 선배(?)님들의 참석은 더 즐거운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4. 당회: 기초성경공부 관계로 목요일(29일)에 모이겠습니다
5. 제1남여선교회월례회: Tea Time을 하면서 모입니다
6. "5분 콘서트": Tea Time을 가지면서 틈틈이 짧은 콘서트 무대를 갖습니다  
\*김유나(피아노): Sonatina. 유모레스크
7. 수요일예배  
\*지난 주 비 내린 수요일 밤, 차도 많이 막혔음에도 빗방울 맞은 어깨 내보이  
며 들어서는 교우들을 보며 말씀 준비와 기도예 더욱 소홀함이 없어야 겠다는  
다짐을 해 보았습니다  
<수요일예배> 수요일 저녁 7:30 <성경강해> 출애굽기
8. 연락 가능한 E Mail 주소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zcalvary@hanmail.net](mailto:nzcalvary@hanmail.net) 김성국
9. 교우들께서 가지고 계신 물건들을 "물물교환"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을 내  
서 담당해 주실 자원봉사 교우를 기다립니다.

◀착한 시인들▶ 개 여 울  
-김소희-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히 개여울에 주저앉아서  
파릇한 풀포기가  
돌아 나오고  
잔물은 봄바람에 해적일 때에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던  
그러한 약속이 있었겠지요  
.....

소풍같이 지내다 떠나는 이별이  
어찌 서글픔이 있겠는가마는 오히  
려 소풍같이 즐거웠기에 애뜻함이  
더 하게됨을 우리는 압니다.  
빈 자리가 더 광던 시절부터 때론  
바위처럼 든든함을, 때론 재치 넘치  
는 조크와 구수한 얘기로 즐거움을  
주었던 사카시다 집사님 내외분의  
떠남을 소풍갔다 일어서는 자리처  
럼 그치지 않는 그리움으로 남겨  
놓겠습니다